

인도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인도의 갠지스강 유역은 면화의 발상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5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도의 면화는 인도인의 마음의 고향이며, 인도의 역사 그 자체였다.

인도의 독립을 위하여 비폭력, 불복종으로 저항을 계속하였던 간디는 인도인의 독립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스스로 물레를 돌리며 면사를 방적하였을 만큼 면화와 일상생활을 밀접하게 묶어주었다.

인도는 북위 7도에서부터 36도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전 국토의 65%가 경작이 가능한 평탄한 토지로서 기후는 대략 열대 내지 아열대 지방의 조건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면화의 경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도는 지역별 풍토조건이 다르고, 다양한 인종, 180여종의 복잡한 언어, 종교간의 갈등, 높은 문맹률, 사회적·종교적 신분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자연적으로는 강수량과 강우 패턴이 불안정하고 수리문제나 인적요인이 마땅치 않아 "인도에서의 농업은 도박이다"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재배여건이 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세계 최대의 경작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면화 생산량은 4위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2년부터 품종개량, 생산기술 개발을 통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면서 2008년엔 2200만 베일을 생산하여 미국을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면화 생산량 세계 2위국으로 부상하였다.

인도에서는 고시피움(Gossypium) 속인 4종류의 면섬유 알보레움(Arboreum), 힐스툼(Hirstum), 발바덴스(Barbadense), 헤르바세움(Herbaceum)을 모두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이불솜으로 잘 알려진 데시(Desi) 면으로부터 초장섬유면에 이르기까

지 여러 가지 면화가 끊임없이 개량과 교배를 반복하면서 재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집트면에 견줄 수 있는 수빈(SUVIN)은 이집트의 칼낙종을 선별하여 개량한 수자타(SUJATA)종과 해도면 계의 세인트 빈센트(St. Vincent)종과의 교배 개량종에서 그 이름을 SUVIN이라고 명명하는가 하면 부드럽고 실크와 같은 맛이 난다는 DCH-32번 같은 면화는 다르와르(Dharwar) 연구소에서 개량한 Dharwar-Cotton-Hybrid의 약자를 사용하여 진행 중이다.

카르나타카주에 있는 이 다르와르 연구소에서는 시험 재배중인 면화가 1천종이 넘어,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으며, 현재는 장/초장섬유면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 그린 섬유 프로젝트에 의한 오가닉 코튼 생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공석봉)

